

신학기 맞은 초등학생 학부모 허리 휨다

“아이 기 죽일수 없다” 고가 학용품 경쟁 부모 심리 교묘히 자극한 상술까지 판쳐

입학시즌 등 새학기를 맞아 진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등골이 휘고 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복이나 참고서·문제집 등 기본적인 물품 구입부터 신발·가방까지 준비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에게 비싸고 좋은 것만 해주고픈 부모의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업계의 상술까지 판치면서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경우, 새학기 평균 지출 비용이 40만원이 넘는 것

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지역 아동용품 전문매장 및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입학시즌을 앞두고 책가방과 신발 등 새학기 학생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새학기 입학시즌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가방으로 평균 10~15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보다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책가방 경우는 20만원대가 훌쩍 넘는다.

또, 최근 학생들 사이에 인기 있는 영화 캐릭터를 가방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 경우 명품 가방 가격을 방불

케 한다.

일본에서 국민 가방으로 평가받는 모제품 경우엔 70만원에 팔리고 있고, 일부 매장에선 이 가방이 유행아이템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문판매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방 뿐 아니라 아동의류매장 역시 고가의 상술이 판친다. 아동용 볼 점퍼가 20여만원에 이르고 팬츠와 티셔츠 역시, 10~15만원 가격에 팔리고 있다.

운동화도 새학기 입학 선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기제품 경우 11~15만원대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꾸준히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곳 매장 관계자는 “최근 특정 제품 경우 디자인이 잘 나오고 유행 아이템

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제품 내구성도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값비싼 물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당할 것을 우려해 앞다퉈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해 과열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대부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는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돈을 또 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독서토론소회사가 최근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등 학부모 57%가 신학기에 평균 40만원 이상 소비한다고 답했다. 초등 학부모는 24%가 ‘4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초·중등 학부모 모두 65%는 ‘신학기가 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했으며 중등 학부모의 27%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결국 부모의 체면이 중요하다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며 “부모들이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기자

다양한 이색 신입생 맞이 눈길
‘왕관 입학식·환영 음악회’ 등

광주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에서 이색적인 입학식이 열려 눈길을 끈다.

5일까지 620여곳에서 입학식을 하고 6일과 7일에는 성인문해교육 입학식, 11일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이 이어진다.

입학식에서 선배 학생과 교사들의 댄스공연 정도는 기본이 됐다.

마술·인형극·왕관 입학식·환영 음악회·꿈을 짚은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방식의 신입생 환영 이벤트가 등장하고 있다.

송우초등학교에선 신입생들이 왕관을 쓰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학식 행사장에 입장했다. 5~6학년 학생들은 댄스와 핸드벨 연주 공연을, 학부모들은 인형극을 선보였다.

신용초등학교 신입생 206명은 입학식에서 정장 특별한 환영 동영상을 만났다. 학교가 신입생들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각 학부모로부터 받아 ‘우리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제목으로 상영했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헬륨 풍선에 꿈과 소망을 기록해 하늘에 날렸다.

전남대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선 이날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재학생 노래동아리 ‘프레젠티’는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멜로망스의 ‘신물’을 불렀고 2학년 학생들은 ‘겨울 왕국 메들리’를 합창했다. 교사들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노래에 맞춰 짹짹 춤을 선보였다.

/황애란 기자

“반려동물용품 다양해서 좋아요”

김대중센터 ‘펫쇼’ 문전성시

“강아지에게 여러 간식을 시식시켜 주어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사 줄 수 있는데다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다양한 물건들을 한번에 모아 비교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3일 오전 ‘제4회 광주펫쇼’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심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용품 관련 100개 업체가 참가하는 호남 최대규모의 반려동물용품박람회, 광주펫쇼의 행사장은 이른 오전부터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말티즈, 치와와 같은 소형견을 애견용 유모차에 태워 데려오거나 풀트리트리버, 팰러뮤트 같은 대형견에 목줄을 채워 온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사료, 간식 등의 샘플을 나눠주는 부스에서 이벤트 시작을 알리자 부스 앞은 순식간에 줄을 선 사람들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였다. 반려동물에게 무료 미용을 해주는 부스도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또 행사장 곳곳에선 반려 동물과 기

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 스튜디오, SNS 이벤트를 제공하는 부스 등이 설치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참가업체들은 북어, 브로콜리 등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반려동물용 전문사료, 디저트, 수제 간식 등의 먹거리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민감한 피부를 위한 케어용품과 패션소품 등 다양한 제품도 준비됐다.

이번 펫쇼를 주최한 한국동물병원협회 광주지부에선 반려동물 건강상담 부스를 설치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무료로 체크하는 이벤트도 제공했다.

행사장 곳곳에선 방문객들이 동행한 반려동물을 유모차에 태우고 핸들링을 해보거나, 반려견에게 샘플 간식을 먹여 보며 입맛을 체크하고 제품을 구입했다. 또, 반려동물용 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돼, 청결한 위생 속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도 반려동물 에티켓을 숙지하고 있어 행사는 차분한 열기 속에서 치워졌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린 ‘제4회 펫쇼’는 1만 2,000명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길용현 기자



‘펫쇼’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방문객들이 반려동물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후 생태 보고 4,012종 보금자리...공원면적 2.5배 증가

국립공원 승격 5주년을 맞은 무등산이 최근 시행한 자연자원 종합조사 결과 4,012종 생물자원의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이는 국립공원 당시 조사된 2,296종보다 약 1,700여종이 늘어났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모두 25종이다. 1급 멸종위기종 수달과 상재나비, 2급 멸종위기종 담비·샾·하늘다람쥐·독수리·산작약 등이 무등산에 터를 잡았다.

천연기념물은 국립공원 당시 9종에서 현재 13종으로 늘었다. 자연경관인 주상절리(465호)는 팔색조(204호), 울빠미(324-1호), 수리부엉이(324-2호), 소쩍새(324-6호) 등이 무등산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꼽힌다.

전체 면적은 국립공원 승격 이후 30km²에서 75km²로 약 2.5배 넓어졌다. 누적 탐방객 수는 국립공원 승격 이후 지난해 말까지 1,848만 1,777명을 기록했다.

“외상 왜 안쥐” 소란

○···외상을
노리개 주지 않는다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가 경찰서행.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유 모씨(56)는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북구 우산동 이 모씨(56·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외상을 주고 안주고는 식당 주인 마음이지 외상을 안해준다고 대담부터 식당을 쑥대밭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 (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터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2천
매매가 9천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 (추천)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
최저: 16억9천

***목포시 창평동 (근린상가)**
감정: 4억5천9백
최저: 2억5천7백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감정: 4억8천7백
최저: 3억4천1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 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실전

2) 실전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 NPL 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일대,
개찰까지 원스톱진행

※ 경매 물건 추천

① 광산구 용동 (공장)
감정가 9억6천7백 → 최저가 6억7천 7백
토지: 500평, 건물: 445평

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2백

③ 서구 마락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1백

**[배우면서 컨설팅가능 (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경매 (대신경매)

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가 4억8천7백 → 최저가 3억4천1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가 13억1천9백 → 최저가 13억1천6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1억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가 30억2천4백 → 최저가 16억9천	9) 화순군 도곡면 천암(숙박시설) 감정가 38억7천 → 최저가 13억8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가 9억 3천 → 최저가 3억 3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근린시설) 감정가 7억2천2백 → 최저가 3억2천3백
5) 광산구 수완동 (1층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 439평 감정가 32억6천 → 최저가 14억6천
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가 3억8천2백 → 최저가: 3억8천2백	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가 3억6백 → 최저: 2억1천4백

APT·주택·공장·토지(기타)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⑥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 (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 5천8백	⑧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 1억 8천7백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 (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 6백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 2천6백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 5천

010-6670-9800 062) 382-5500